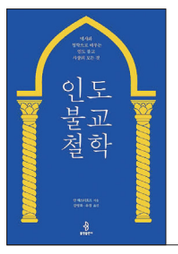
불교공부, 불교철학사 이해서 시작해야



인도불교철학
얀 웨스터호프 지음
강병화 · 유경 옮김
불광출판사 / 3만원

불교, 2600년 지속된 거대한 유기체
불교공부 위해서 인도불교철학 봐야
아비달마~7세기 담은 '印불교철학사'
개론서보다 더 개론서답게 사유 살펴



통도사 적멸보궁.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공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초기불교'로 시작할까. 아니면 대승불교로 시작할까. 불교공부를 시작하기에 좋은 책이 나왔다. 신간 〈인도 불교 철학〉이다.

불교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초기불교'부터 시작한다면 초기불교에 치우친 관점을 갖게 되기 쉽고, 그렇게 되면 '불교'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다양한 가르침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불교는 약 2600년에 걸친 오랜 세월 동안 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무대로 하여 성장하고 발전해 온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는 초기불교 혹은 대승불교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불교 학파의 가르침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닌 것이다.

불교라는 장구한 드라마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기본적인 가르침을 고통스러운 중생의 삶과 결합시키기 위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란 단순히 '무상'이나 '공(空)'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러한 노력과 고민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했던 굳은 의지와 꺼지지 않는 생명력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불교공부의 바람직한 출발점은 '불교'라는 범주로 포괄되는 여러 가르침이 석가모니 이래로 어떤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어떻게 흥기하고 발전하고 쇠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일 수 있다. 불교는 문자로 전해지는 가르침만으로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역사를 추동한 노력과 고민, 의지와 생명력에 비추어 고찰될 때 비로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공부라는 긴 여정을 불교철학의 역사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할 때, 그 여정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생경한 '불교'들에 대해 진지하고 편견 없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개방적인 태도에 입각한 불교공부는 불교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궁극적으로 삶을 보다 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불교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그 출발점으로 불교철학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불교철학사를 공부하는 것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는, '불교'라는 범주에 포괄되는 여러 가르침을 대하는 성숙한 안목과 태도를 키운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목과 태도를 갖춘 사람이라면 불교공부라는 기나긴 여정을 지나며 만나는 풍요로운 가르침의 세계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책 〈인도 불교 철학〉은 불교철학의 역사에 대한 책으로서 아비달마 시기(서력 기원 초기 무렵)부터 다르마끼르띠의 활동 시기(7세기 무렵)까지의 인도 불교철학사, 즉 아비달마·중관학파·유가행파·인명학파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사유를 선별하여 충실하게 소개한다. 이 시기의 인도불교는 이후에 아시아 각 지역에서 전개된 여러 '불교'들의 교리적 기반이 됨으로써 2600년 불교철학사의 뼈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장 '아비달마'에서는 아비달마 전통의 성립 배경이 되는 논모(論母, mātṛkā)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일체유부와 경량부 등 주요 부파의 특징적인 사유들을 차례차례 다룬다. △2장 '대승'에서는 대승불교의 기원, 반야 사상, 용수의 철학을 주로 다룬 다음, 불호·청변·월칭·적호·연화계 등 용수의 뒤를 이어 중관학파의 맥을 이은 주요 학자의 사상까지 살펴본다. △3장 '유가행파'에서는 유가행파의 발전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후, 찰나멸론·유심론·알라야식론·삼성설·자증설 등 유가행파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들을 설명한다. △4장 '디그나가와 다르마끼르띠 학파'에서는 이들이 전개한 인식론과 논리학의 개요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디그나가와 다르마끼르띠의 학파 귀속 문제와 같은 흥미로운 주제까지 아울러 다룬다.

책 〈인도 불교 철학〉은 여러 사유를 설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지 않음에도 본격적인 개론서보다 이를 더 잘 설명하고 있다. 책은 여느 개론서처럼 각기 다른 불교학파에 귀속되는 여러 사유를 그 자체의 논리에 입각하여 평면적으로 소개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았다. 대신 불교철학사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각각의 사유들이 가진 문제의식과 그 의식적 지향들을 고스란히 살려냄으로써 보다 입체적으로 그것들을 설명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책은 불교철학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론서로서의 역할까지 충실하게 수행한다.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주는 명상시



골라 뽑은 입보리행론송
샨티데바 지음
역자 · 원인
민족사 / 1만5천원

"나는 나 자신과 내 모든 소유물을 불보살님과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존재 중에 가장 으뜸이신 분이시여! 공경한 마음으로 제자가 되겠습니다."

책 〈골라 뽑은 입보리행론송〉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켜 주는 책이다. 7~8세기의 성자 샨티데바(적천 비구)가 쓴 입보리행론송 가운데 감동적이고 중요한 내용만을 원인 스님이 친절하게 골라 뽑았다.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주는 명상시들이다.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대승불교의 입문서'라고 불리며 광범위한 가르침이면서도 간단한 게송으로 표현된 책이다. 인도에서는 〈입보리행론〉이라 했고 한역에서는 '보리행경(菩提行經)'이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보리행론이란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는 글'이고, 보리행경이란 '보리심을 닦아가는 길'이라는 뜻이다. 〈입보리행론송〉은 보리심과 보살도 정신을 대승보살의 6바라밀 뜻으로 풀이한 감동적인 게송(詩, 명상시)을 담고 있다.

'보리심',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 〈골라 뽑은 입보리행론송〉은 가치관의 부재로 갈팡질팡하는 현대인들에게 나침반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지도자 달라이라마도 2021년 설법을 하면서 위기에 처한 세상을 극복할 열쇠는 바로 '보리심'에 있다고 했다.

역자 원인 스님은 보리심이라는 우리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진 청정한 마음을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며, 보리심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수행법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자리적 수행이고 또 하나는 이타적인 보살도이다. 원인 스님은 "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리도와 보살도라는 큰원력과 큰마음을 가지고 정진할 때 마침내 보리심을 증득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재완 기자

효과적 수행 위한 실질적 조언들



지금 바로 시작하는 마음챙김 명상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지음
조인숙 · 이재석 옮김
마음친구 / 1만6천800원

"왜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명상을 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만으로 우리는 삶에서 쉬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불만족을 타고난 존재가 된다. 책 〈지금 바로 시작하는 마음챙김 명상〉의 저자는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가 '인간'임으로 인해 갖게 되는 근원적인 불만족을 해결하는 근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음챙김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마음 훈련이다. 마음챙김은 자신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자기 발견의 과정이자 관찰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다. 마음챙김 수행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생각과 개념의 장막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다는 점에서 일상적 활동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평소 우리는 생각과 개념이라는 장막을 통해 보는 세상을 '실재'로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다. 이때 '세상'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마음챙김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이기적 행동을 보고, 자신의 괴로움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평소 자신에게 속삭이는 거짓말 속으로 들어가 거기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볼 때 세상에 지혜롭게 응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상을 걷어내고 실재를 알고자 할 때 참된 자유와 행복은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이것은 교리나 도그마, 신앙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실재인 것이다. 마음챙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쉬운 영어로 배우는 마음챙김〉 가운데서 지금 바로 명상을 시작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만을 새롭게 간추린 것이다. 명상할 때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이 방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상할 때 일어나는 몸의 통증과 졸음, 지루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두려움과 초조함, 자기 비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수록했다.

박재완 기자

깨달음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행복교과서



행복하고 싶은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주는 명상시, 입보리행론송

7~8세기의 성자 샨티데바가 모든 사람이 가장 바라는 행복으로 가는 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아름다운 게송(명상시)으로 일깨워 준 입보리행론송!
수행자의 안목으로 감동적인 게송만을 정선精選하고 개역改譯한 책

역자 원인, 저자 샨티데바 | 216쪽 | 15,000원



원인 스님 1969년 합천 해인사 입산, 1974년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 이후 50년간 선원과 토굴에서 정진, 2010년 김천 수도암 선원장, 현재 태백산 큰마음도량 회주, 유튜브 큰마음TV, 다음 큰마음카페
저서로 법문집《마음고향 가는 길》,《염불선의 요체》, 강설집《삶의 지혜(금강경 강설)》,《선으로 본 화엄경 요점 해설》,《초발심자경문 강설》, 선시집《마음여행》,《자연 속에서》,《구름 따라 길 따라》 등이 있다.

NEW BOOK
출판 기획안을 받습니다

도서출판 민족사에서는
참신한 불교책 기획안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minjoksa.org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